

제十四장 마지막 귀별의 경고

十四만四천인의 승리

「내가 또 보매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는데 가리 잇는 자가 十四만四천이니 그의 이름과 그 아바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것이 잇더라 내가 드르매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여러 볼소리도 갓고 큰 퇴성도 가튼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라 는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저회 무리가 보좌와 내 령볼과 장로압해서 노래를 하니 새 노래 가튼데 이 노래는 씨에서 구속함을 얻은 十四만四천인밖에는 능히 배울자가 없스니 저회는 계집으로 더부러 더러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잇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씨라가는지라 저회가 사람가운데서 구속함을 얻더 처음 의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드린바 되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 고 흠이 없는 자더라」

전장에도 말한바와 가리 본장 一절로 五절까지의 기사는 十二장 十三장의 기사와 련 락되는 기사이다. 우리가 十三장을 연구할때에 증생의 이상에게 정배하지 않는 자는 머 치든지 죽인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혹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 계명을 서로 는자들이 어찌케 구원함을 얻을가하고 의심을 품고 넘어하기도 쉽다. 그러나 여기에 보

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명을 순종하는자를 바리새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견저주실것
을 알수있나니 여린양의 『시온』산에 섰는데 가리잇는자가 十四만四천명이오 그들의 이
마에는 여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잇었다. 이 十四만四천명은 七장
에서 이미 연구한 十四만四천명과 꼭 가른 무리로 증생의 표를 받지안하고 하나님
의 인치심을 바른자 곳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자들이다. 그들이 이제 증생의 권세를 이
기고 송리의 음악을 연주하는것이니 十四만四천명 이외에는 아모도 이 새노래를 배울
자가 업는것이다. 대개 저들은 싸에서 증생으로 더부러 싸와 이진자들이니 그 송리의
노래를 부를자격이있으며 또한 저들은 처음 의은 열매가 되어 싸에서 직접 구속함을
바른자들이니 사람가운데서 변화함을 받고 하느로 올려감을 입은 특별한 무리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정절이있어 계집으로 더부러 더러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과 흠
이 업는것이다. 원래 성경상에는 너자를 교회로 대표하되 정절이 잇는 너자는 참교회
로 대표하고 음란한 너자는 타락한 교회 곳 진리에서 쉰난 교회로 대표하므로 계집
으로 더부러 더러히지 아니한다함은 배반한 교회로 더부러 관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의 참된도리를 거스리지 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말에나 행실에 거짓과 부정함이 업
시 흠할것업는 품성을 가진것은 저들의 특징이었다.

十四만四천명은 우에 귀중한바와 가리 특별한 환경에서 고난을 받고도 그 품성을 상
하지안은 특별한 무리이므로 처음의은 열매와 가리 중대히 역임을 바다 하느 고간에
추수될것이니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듣는자들— 이 十四만四천명 반렬에 참여할 교회

를 어든 우리는 김흔 깨다를과 큰 결심으로 우리 압해 당한 기회를 헛되히 저바리
지 말것이다.

마지막 기별

「또 보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싸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 전하고저하니 곳 여러 나라와 족속과 지방과 백성이라 그 천사가 크게 소리
하야 가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대개 심판하실때가 이르렀으
니 하늘과 싸와 바다와 밧 여러 물생을 만드신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
사 곳 들재천사가 그 뒤를 썩라 말하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어 여러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술로 먹였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곳 셋재 천사가 그 뒤를 썩라 크게 소리하야 가르대 만일 누가 증생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또 이마에나 손에나 표바는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술
을 마시리니 진노하시는 잔에 석진것이 업시 부은술이라 여러 거룩한 천사와 어
린양 압해서 불과 류황의 고난을 바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
로다 증생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바는자는 누구든지 밤낮 평안함
을 잊지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보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의 도리를 지키는자니라」

「요한』이 『반포』성에서 본바 처음 네가지 묵시—닐굽교회, 닐굽인, 닐굽라발, 세 증

생은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에 잇을 사건을 여러 방면으로 말한 것이다. 이제 연구하려는 것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중대한 묵시이니 이는 二천三백년의 긴 예언적 시기가 마치기전 十년 곳 一八三三년부터 시작된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묵시이다. 그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싸에 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지방과 백



첫천사영광복음의전경가사천제첫

성에게 전하대「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대개 심판하실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싸와 바다와 및 여러 물생을 만드신이를 경배하라」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첫째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을 가리켰으며 언제부터 잇을것인가? 다니엘서八장과 九장의 二천三백일문제를 연구하여 보면 二천三백일의 쓰리 一八四四년에 마치는데 그때부터 하늘성막에서는 성소를 정결하는일 다시 말하면 모든 빛

는 사람의 행실을 살피는「조사심판」이 열리었다. 심판에는 세가지일을 생각할수 잇는 바 첫째는 죄상의 유무를 조사하는것, 둘째는 결정하는것, 셋째는 그 결정한 판결을 집행하는것이다. 그런데 빛은자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그 행실을 조사하여 구원어늘 여부를 결정하는것이다. 첫째천사의 심판하실때가 이르렀다는 기별은 심판이 시작하는 一八四四년의 약 十년전부터 거의 온 세계에 전파되었으니 이것의 곳 예수재림의 선전으로 나라나계 되었다.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八장十四절의「二천三백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한것과 묵시十장六절의「남은때가 업스리라」한것을 가지고 一八四四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잇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각지방에 잇는 성경연구자들을 서로 의논이나 한것처럼 이문제에 대하여 욱가튼 감상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각각 저의 깨달음대로 예수재림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였다. 『윌리엄·밀러』(William Miller)가 이 기별에 미국에서 크게 전하여 여러 만명의 찬동자를 얻었으며 『요셉·윌버』(Joseph Wolff)가 이 기별을 구라파와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二十여 나라에 전하였으므로 『조빙』(Irving)과 『가우센』(Gausson)과 불란서와 서서에서 『라우란자』(Lancunza)(Keller)가 독일에서 『자우슨』(Gausson)과 불란서와 서서에서 『라우란자』(Lancunza)는 서반아에서 각각 이 기별을 전하였으며 나위와 서전과 정말에서는 정부에서 이 기별 전파하는것을 금지하였음으로 十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예수재림을 힘있게 증거하였으나 저들은 과연 성신의 감동하심과 지도를 따라 입속한 목소리로「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대개 심판하실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싸와 바다와 여러 물생을 만드신이를 경배하라」하는 성경절을 낭독하고 또한 장래의 노하심을 면하라는 권

편까지 하였다. 이와가리 첫재천사의



십사만어의어린아들이예수씨를증거함

노하시느솔로 피엿도다」하였다. 그러면 『바벨론』은 무엇을 대표한것이며 무너진것은 무

심판하실때가 이르렀다는 기별은 온세계 각처에 신

기하게 전파되었다. 그런데 당시 성경연구자들은 재림을 선전함으로 첫재천사의 사명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전한 심판이 집행심판인줄로 오해하였었다. 그러나 一八四四년후에 성경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는 가운데 첫재천사의 전할 심판은 집행심판이 아니라 一八四四년부터 하늘성전에 잇는 조사심판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가운데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방금 진행되고 잇는 것을 증거하는바이다. 그런데 이 첫재천사의 기별에 대하여는 묵시十章九절十절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나니 비록 일시실망하는일이 잇을것이나 오이러 계속하야 크게 증거될것이 예언되었다. 첫재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동안에 들재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여러나라를 그 음행으로 하여 진

잇을 의미한것이냐 창세기十一장의 괴물을 보면 『노아』홍수후의 하나님을 믿지안는 교만한 백성들이 『시나』평지에 한 큰탑을 싸하 『바빌』(Babil)이라고 하였는데 『바빌』이란 뜻은 곧 「하나님의문」이란 것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표인 무지개를 보면 서도 그 언약을 믿지안코 이 답으로 말미암아 다시 홍수가 이를때에 스스로 구원할수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위를 가증히 역사하 그 역사를 마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였나니 그후로는 혼잡하다는 뜻으로 『바빌』(Babil)을 『바벨』(Babel)이라 하였다. 『바벨론』은 곧 이 『바빌』이란 어원(語源)에서 나온것으로 혼잡하다는 의미가 잇는것이다. 또한 묵시十七장의 예언가운데 나타난 붉은증생을 한 계집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였는바 이 계집은 씨의 가증한것의 어미라고도 하였다. 그런즉 그 계집은 어미 『바벨론』이여니와 그 계집에게는 또한 딸 『바벨론』들이 잇을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바벨론』은 변질한 교회인 천주교회와 또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써르는 일만 그리스도교회를 의미한것이다. 대개 오늘날 만흔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그의 교훈을 순전히 써르지 아니하고 성경이외의 사람의 의견과 지식을 가하여 『바벨론』적 도리를 일만에게 가르친다. 가령 일요일을 지키는것이든지 영혼설을 주장하는것이든지 세례식을 성경의 법칙대로 행하지 안는것이든지 순수한 신앙을 써나서 사회로 더부러 련락하는것이든지 하나님의 오묘한 성경의 진리를 미를수업는 사람의 천박한 철학설이나 과학설로 말미암아 곡해하는것이든지가 다 오늘날 일반 그리스도교회가 『바벨론』되는 증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하야 특별한 사명을 보내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벨론』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아니하였으매 신령적으로 소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조 락한 가운데 빠지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천사가 오이러 기별을 전하는 동안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쫓아 크게 소리하기를 「만일 누가 증성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지 또 이마에나 손에나 표바는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술을 마시리니 진노하시는 잔에 섞인 것이 업시 부은 술이라 여러 거룩한 천사와 어린양 앞에서 불과 류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증성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바는자는 누구든지 밤낮 평안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미 기록한 바대로 첫째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기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전하고 둘째 천사는 이 기별을 순종치 아니하는 『바벨론』 곳 속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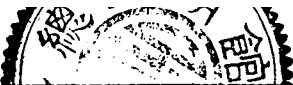


— 벌레의 사천재셋느라말지하비경게에상우그과영증

한 그리스도교회에 대하여 그 기별을 뜻지 아니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락을 이룰것을 경고하고 셋째 천사는 처음 두 천사의 경고를 뜻지 안코 그릇된 도리를 행하야 세상으로 더부러 련합하는자들의 바들 형벌이 얼마나 클것을 부르지졌다. 그런데 셋째 천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바들자에 대하여 지독하기를 「증성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또 이마에나 손에나 표바는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十三장에서 자세히 연구한 것이므로 여기에 더 진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업거나와 증성은 곳 법왕권이오 우상은 법왕권과 비슷한일을 행하는 조직, 또한 그 표는 일요일을 가리침인 것은 밝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증성의표 일요일에 관하여 그 성질과 내용이 어찌한것을 큰소리로 웨치는 기별이다. 그러나 오이러 이 기별을 뜻지 안코 여전히 증성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자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불과 류황의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十二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할 성도를 가리쳐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러 보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자니라」 하였다. 이들 온 곳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바다 나온 성도의 무리로 증성의 권세와 싸와 무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저바리지 아니한자들이다. 그런데 이 세천사로 말하면 하나가 그 기별을 다 전한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오이러 첫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동시에 둘째와 셋째가 그 뒤를 쫓아나왔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삼중(三重) 기별이다. 一八四四년을 전후하야 이러난 이 기

하



별곡의고경막지마

별은 아직도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이 세천사의 사명을 행하는 무슨 특별한 단체가 이 세상에 있는가? 그것은 곧 「재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니 이 단체는 一八四四년경에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 고 一八六三년에야 완전한 조직체를 이루었으므로 아직七十년미만의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체지마는 그 사명이 아조 진절하고 최후적인만큼 그 발전도 심히 커서 지금은 전 세계에 그 선교기관들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재에 전도하는 방언수가 四一七이오 년래로 선교사를 파견한 총인원이 三、六一八명이오 전 세계의 사역자 총인원이 一〇、九八八명이며 一개년간 선교사업을 위한 연금총액이 四、五二七、三〇九、〇四불이오 一개년간 인쇄물 발매고만하여도 四、七一五、七〇九、八九불에 달한다. 그리고 사업기관으로는 인쇄소가 七一개소, 병원이 一〇六개소, 대학과 기타 학교가 二〇一개소, 소학교가 一九七七개소이며 이상 모든 기관의 자산총액이 五四、一一五、四八二、五五불에 달한다.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에 가장 필요한 인쇄물은 一四六개 방언으로 출판하는데 특별히 정기간행물이 二一九종이며 이 인쇄물들을 한가지씩 산다고하여도 그 가격은 一、八一四、七三불에 달한다. 이와가튼 대규모의 조직 아래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실상 이 사업을 지배하는 신도총수는 三三一、〇八四명에 불과하고 안식일학교학생 총수로 보더라도 四〇九、五一六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아조 적은 무리의 단체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경성되어 나아가며 또는 아조 짧은 동안에 아조 큰 수확을 잇는 터이니 최근 一년간의 신도증가수는 一七、六七一명의 다수이다.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오래지아니하여 그치게 될 것이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의 단체를 다려가실 것이니 이 기별을 뜻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깊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응하여 성도의 단체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이다.

세상의 추수

「내가 드르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대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를 능히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성신이 가르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매 그 행한 일이 또한 쓰르나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매 흰구름이 있는데 구름에 안진이가 인자와 방불한지라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리한 낫을 잡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우에 안진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리가르대 네 낫을 가지고 거두라 거둘때가 이르러 쓰에 곡식이 말랐도다 하니 구름우에 안진신이 가 곳 낫을 쓰에 두르매 곡식이 거두이나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잇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리한 낫이 그 손에 잇는지라 또 불차지한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리한 낫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불리가르대 네 리한 낫을 가지고 쓰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의었도다 천사가 낫을 쓰에 들러 쓰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하지는 술짜는 큰 들에 던지매 성막에서 그들이 밟히이니 들에서 피가 나서 길기가 말쿨레까지 올라오고 길기는 『로마』 리수로 천

六백리덕락

우리는 세천사의 사명과 세천사의 사명을 리행하는 성도의 단체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하였거니와 十三절에는 「자금이후로 주를 능히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허락이 있다. 그러면 자금이후라니 언제부터를 지목하여 하는말인가 곳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때로부터를 가리칭이니 세천사의 기별을 뜻고 성도의 단체에 참가하여 그 기별을 힘써 증거하다가 죽는자는 복이 잇을 것이이다. 대개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잇을 여러가지 곤난과 시험이 만흔 위험한 시대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도 이러한시대를 지낸 성도들과 한가지로 十四만四천인의 영광스러운 반렬에 참여할 것이오 또는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여 구주의 림하시는 것을 친히 보고 영접할 수 잇을터임이다.

세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야 각 사람에게 증거되고 만흔 사람이 그 기별을 쓰라나오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리한낫을 잡고 이 세상을 추수하리 강림하실 것이이다. 이 예언으로 보더라도 세천사의 사명은 이 세상 마지막 사명인것을 분명히 알 것이니 세천사 다음으로 나오는 천사는 인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보고하기를 「거둘때가 이르러 쓰에 곡식이 말랐도다」 할 것이이다. 그리하여 인자는 낫을 쓰에 들러 알곡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을 하늘곡간에 추수하여 들일 것이오 죽정이는 불에 사로아 멸할 것이이다.

그런데 十七절 이하로는 멸망시킬 악한자에 대하여 포도송이로 대표하였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희의 포도나무는 『소돔』 포도나무에서 나고 『고모라』 들에서 난 것이니 그 포

도는 독한 포도요 그 송이는 쏘도다 저회 술은 배암의 독이오 독사의 약독이로다」(신
 卍二〇卍二, 卍三)하였다. 그러므로 저회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술씨는 큰틀에 던지매
 성박계서 그 틀이 밟힐것이다. 여귀 말한 술씨는 틀은 一천년후에 잊을 약인의 멸망
 을 가리침이니 성박근 곳 새 『예루살렘』의 성박기 될것이다. 二十절의 피가 말클레싸
 지 올라온다는것과 길기가 一천六백리가 된다는것은 클자 그대로 사실이 나랏나갓다고
 생각할수는 업는일이여니와 당시에 행수업는 무리가 멸망을 당할것은 불문이다. 그리고
 이절은 묵시二十장七, 八, 九절 말승과 대조하야 연구할것가트면 그 참뜻을 대략 짐작
 하리라고 생각한다。

